

정확한 원가 계산 후 생산에 돌입해야 한다.



백 성 균
본회 의정부 분회 총무

지 난해 말 우리는 IMF의 한파로 전 국민이 충격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의 파국은 우리 축산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느낌이다.

우선 곡물가가 폭등하면서 사료수급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며 육계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

이 50% 가까이 상승하고 유가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TV나 방송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모든 가축은 물론 닭들까지 사료가 없어 내다 버리는가 하면 조기 출하를 하는 등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더욱이 육계가격은 생산비선을 밀도는 1,200원 이하에 거래되었고 이틈을 이용해 상인(유통 및 계열업체)들은 싼 가격에 닭을 사들여 냉동 보관에 들어갔으며 생산자들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피해를 보면서도 하늘말 처다볼 뿐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가 없었다.

산지 닭값은 여전히 낮은데도 소비자 가격은 타산물들이 오르면서 같이 뛰어 중간 유통상들만 배를 불리우는 꼴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부채가 늘어난 대다수의 생산농가는 사료값을 갚기 위해 육계업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현실이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노력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즉, IMF시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육계인은 더욱더 뭉쳐야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우리는 과욕을 부려온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이렇게 고통의 나날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우리 육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소비가 40% 이상 줄어 들었으니 생산도 40%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누구도

협조하는데 선뜻 나서주지를 앓았으며 협조를 할 경우 협조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둘째로 모든 사육비가 상승된 만큼 최대한의 경영비를 줄여 생산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농장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확한 계산을 하여 원가를 따져보면서 생산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우리는 유통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닭의 출하를 유통에만 맡겨 왔다. 현재 가격의 결정도 17개에 달하는 유통업체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이 상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에 DC라는 것이 생겨나 유통의 흐름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어 누구의 책임을 따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제는 우리 육계인들이 살아갈 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뚝치는 길 밖에는 대안이 없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있고 각 지역에는 지부·분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육계인이 협회에 모두 가입하여 각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면 정확한 정보와 유통 구조 개선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들은 바에 의하면 대구의 모 영농회사에서는 수 개월전 생산자들이 모여 영농 회사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닭을 우선으로 출하하고 직접 도계하여 대구 인근 도시로 납품한다고 들었다.

이처럼 생산에서 도계까지 중지를 모은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위생적이고 신선한 닭고기를 공급함으로써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소비자들은 싸고 신선한 것을 원하고 있다.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발휘할 때이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육은 중단되어 있으며 이런 기회에 소비자의 입맛을 신선하고 맛있는 국내산 닭고기로 바꾸는 노력을 할 때이다. 닭에 대한 식생활 문화도 계속 연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요즈음 각 지역마다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닭은 약간의 실수로 사양관리에 허점이 생기면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방역도 잘해야 되겠지만 병아리 구매에도 틀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병아리가 조금 싸다고 하여 쉽게 구입을 한다면 곧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병아리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요즈음 곡물 상승으로 인하여 사료질에 문제가 있다고 양축 농가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만큼 병아리의 질까지 나빠지지 않도록 종계장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닭은 우리 식단에 없어서는 안될 고급 요리이다. 백년 손님에게만 대접하던 옛 선조들의 뜻을 새겨 건강한 닭으로 잘키워 백년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게 우리의 의무이다.

때문에 철저한 소독을 통해 건강한 닭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몇가지 열거했듯이 육계인이 모여 지혜롭게 경제위기에 대처한다면 21세기는 희망찬 내일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양계**